

# 협상 ↔ 결렬 ↔ “네 탓”… 도돌이표 국회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무산에 6월 개회도 차질  
평화·정의당 “단독 국회 열자”…與, 신중모드  
20대 법안 처리율 28.9%…최악 식물국회 우려

여야가 3일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 원내대표 간 협상 결렬 이후 이날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단적 대치 속에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는 ‘네 탓 공방’으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안 문구로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이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처리’를 못박아야 국회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일단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조하는 당끼리 단독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국회 초임부터 강대강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여야가 표방한 ‘일하는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보다는 막발 공방,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전에 치중하면서 일하는 국회는 실종된 지 오래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101건(3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 1만412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현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처리 시한을 넘긴 민생 법안이 수도룩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가운데)이 3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면담했다. /연합뉴스

## 양정철, 여권 잠룡 잇단 환담

박원순·이재명 회동…민주연구원 수도권과 정책 협약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행사로 3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따라 환담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수도권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간의 업무 협력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만남이었지만, ‘권력 디자이ner’라 불리는 양 원장이 ‘대권 잠룡’들에게 손을 내민 모양새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과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원장은 각 연구원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협약식에 앞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와 별도 환담 자리를 가졌다.

양 원장은 박 시장을 만나 “시장님께 인사드리고 한 수 배우러 왔다. 시장님은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아이디어 뱅크”라며 “시장님은 생활 정치, 국민 밀착형 생활 정책을 생생하

게 시도하고 계신다”고 치켜세웠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서울시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양 원장은 또 “이 지사께서 갖고 계신 획기적인 발상, 담대한 추진력을 통해 경기연구원에 축적되는 연구 성과와 여러가지 힘을 합쳐 경기도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 지사를 띄웠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거나 앞으로 할 일들을 민주연구원에게 많이 받아주시면 영광”이라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전국 단위로 퍼져나갈 수 있으면 저희도 고마운 일”이라고 화답했다.

양 원장은 이 지사 공관에서 만난 회동을 했다. 이는 양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동합’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총장 후보 8명 검증 돌입

다음달 말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후보자 3~4명의 윤곽은 이달 중순 나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3일 차기 검찰총장 선출과 관련해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2년)는 다음달 24일에 만료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3~20일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제정 대상자 10여 명을 천거받았다. 이

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지난주부터 재산·병역·납세 등을 검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순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하고 외부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천위원회는 인사검증 자료를 토대로 천거된 인물들 가운데 3~4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관례에 따라 첫 회의 때 후보군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이 최종 후보를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지명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차기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왼쪽)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오후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키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 토론배틀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고없는 혈투

### ‘홍카레오’ 대전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토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배틀’을 벌였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완성된 영상은 오후 10시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이날 토론 사회는 언론인 출신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가 맡았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별도 원고 없이 10가지 주제로 자유 토론을 했다.

/연합뉴스

## 安-劉 연합군 ‘하태경 구하기’

바른미래 윤리위원장 교체 요구·‘정병국 혁신위’ 수용 압박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계 연합군’이 손학규 대표 측을 향해 본격적인 협공에 나서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공세 수위가 꺾이는 듯했던 유승민계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정계 논의가 편파적’이라며 역공을 재개했다. 안철수계는 자신들이 제안한 ‘정병국 혁신위원회’ 안을 관

철하기 위해 유승민계와 손잡고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 측을 압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계 최고위원들은 송태호 윤리위원장 이 손 대표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이사장이라며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하 최고

위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했지만 유 의원에 게 막대한 이찬열 의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송 위원장의 불신임 요구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병호 최고위원은 “지금 발언은 하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말라고 압력 넣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손 대표도 최고위가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는 독립·중립 기구로 공정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겠다”며 ‘변항성’ 주장을 일축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안-유 연합군’은 4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안철수계가 주장하는 ‘전권 혁

신위원회’ 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놓고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5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은 결국 손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손 대표의 거부 입장은 완강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혁신위원장 후보자를 찾아 4일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대안 인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손 대표는 현재 후보군을 좁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대상자들이 고사하면서 막판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임 야 매 매

▶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95 26,475㎡ 15억

▶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3 25,000㎡ 13억

**010-8443-5165**

개 인 직 거 래

## 임 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지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없는 분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해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없는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한 발의금 분  
대표 당근이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장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태양광 영업 경험 유망자  
태양광 영업 경험 유망자  
태양광 영업 경험 유망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Z, 모든 단계, 개발부터 EPC, O&M까지  
담당자: 1.설비 025440-2542, 2.유망 025440-2542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 부 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근무지 |                          |
|-------|-----------|-------------|-----|--------------------------|
| 다 스 코 | 전략기획      | 전략기획        | 화 순 |                          |
|       | 신재생에너지    | 영업          |     | · 사업개발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
|       | R&D       | · 태양광영업 경력자 |     |                          |
| 세 라 코 | 수질관리      | 영업          | 나 주 |                          |
|       | 생물리(환경공학) | R&D         |     | · 설계영업 경력자               |
|       |           |             |     | · 설계영업 경력자               |

· 업무분야: 설비장 025390-2537, nco@daesco.co.kr, 설비장: ~ 8884사지

2019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아간과정 운영 (주1·2학, PM 7시~11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입학원서 접수(인터뷰 작성)    | 2019.06.03(월) ~ 06.19(수)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 2019.06.03(월) ~ 06.20(목) |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
| 전 형 일 시            | 2019.07.03(수) 09: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
| 합 격 자 발표           | 2019.07.19(금) 11: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외식산업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